

필요광장

신권력과 함께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자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우주에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틀어지고, ‘이젠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것을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니다.”

영화 ‘마션’(The Martian, 2015)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인 마크 와트니가 어떻게 화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전하는 대사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심해짐과 동시에 경제 발전의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영화 속 주인공이 지닌 그러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경제성장물은 지

난 과거처럼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저성장이 일상화된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에 진입하였다. 불확실성과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상황에서 경쟁 우위의 새로운 원천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군중이라는 신권력이 그러한 기회가 될지를 각자의 위치에서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군중이라는 이름의 신권력이 등장하기 전에는 소비자는 그냥 소비자였다. 그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제품과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용한 소비자’가 아니라 제품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제품 동호회 활동과 아이디어 공모 등의 방법으로 프로슈머의 아이디어를 생산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군중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권력이란 강제성에 기초하여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힘이며, 영향력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다. 지금까지는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신권력의 시대에는 구매와 소비 활동 역할로만 국한되었던 소비자들과 같은 군중들이 스스로 상호 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킨다. 국가 권력자와 시장 권력자 모두 이제는 좋은 싫든

군중이라는 신권력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군중의 신권력에 기반한 신흥 기업들이 전통 기업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택시업계와 대립하고 있는 우버에 대한 기사도 노출되고 있으며, 레고(Lego)는 블록들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레고를 만들어 전시하거나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하는 활동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이는 협동 소비자 협동조합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는 시장에서 권력 이동(Powr Shift)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 혹은 서비스로 권력이 이전되어 왔다면 이제는 기업에서 소비자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관점으로는 새로운 권력에 대응할 수 없다.

과거에 특정 산업의 구조가 기업 수익성을 결정한다는 산업구조 관점은 동일한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개별 기업의 수익성 편차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보유한 독특한 자원이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는 자원 준거 관점이 제시되었다. 그 이후에는 산업의 구조나 기업 내부 자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가 경쟁 우위 창출의 핵심 역할이 됐으며, 이는 우리가 많이 들어 본

‘상생’과 ‘동반 성장’과 통한다.

“갑(甲)이 되고 싶어 ‘갭’(GAP, 발음을 갑에 비유)을 주로 입는다”는 한 중소기업인의 말처럼 갑을관계(대기업-중소기업, 협력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에서 갑질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그 의미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비자와 같은 신권력을 담고 있지 않다. 동반 성장에 소비자는 없다.

내가 가진 걸 공유해서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연결된 것이고 이 연결성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군중이 만들어 내는 신권력을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유할 수 있는 가치’에 기초하여 신권력 군중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제품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공익성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신권력 군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건 ‘투명성’과 연결돼 있다. 신권력은 공유와 참여, 급진적 투명성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모델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기존 경쟁자들은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파괴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한 군중들을 아군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신권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법조칼럼

잔소리의 변



전 미 화
광주지검 검사

은 기소유예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이 사람이 기소유예 결정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면? 재판을 받거나 벌금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검거되더라도 물건을 돌려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 함께 근무했던 부장의 한 마디 덕분이었다. 그는 검찰이 국민과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며, 과연 사건관계인이 검사가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진기록부에 적힌 의사의 처방내용을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검사가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사건 관계인이 똑같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것이 있었다. 피의자를 조사하며 전과관계를 물어볼 때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심지어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피의자에게는 교도소에서 실제 복역을 한 것만이 전과였던 것이다.

사건 처리 결과를 궁금해 하는 고소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소중지가 되었다거나 참고인중지가 되었다고 설명을 할 때 바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벌금 낸 것은 전과가 아니라, 집행유예 받은 것은 전과가 아니냐고 면박주기를 그친 것은 그 부장의 한 마디 덕분이었다.

그 후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기소유예 결정 예정인 피의자들을 직접 소환해 면담을 하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훔치다가 검거된 고등학생,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생긴 말다툼이 폭력사태로까지 번지게 된 직장인,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 준 사람 등등. 기소유예처분통지서가 발송되기는 하였지만, 그 통지서에 적혀 있는 글자만으로는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 피의자들에게는 별도로 연락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한다. ‘벌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을 내거나 재판을 받게는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이것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재범할 경우 이 사건까지 함께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범죄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 설명한다.

가끔은 내가 괜히 사람들을 불러놓고 쓸 데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러나 한 번은 실수했지만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이런 잔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혼자 뿌듯해진다.

나의 잔소리가 형법체계를 잘 몰라 범죄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재범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법이 용서와 관용, 사랑의 얼굴도 가지고 있음을 알려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의 잔소리는 제 몫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말이 마냥 거창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피의자에게 전화를 한다.

기 고

시대의 성장판, 청년



이 중 환
광주시 일자리경제국장

년실업자 수가 40만명에 육박하며, 체감 실업률을 적용하면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사실상 실업상태에 처한 니트 족(취업포기자)이 급증하고 있고, 전체 실업자 4명 중 1명이 청년층이며,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 질도 비정규직 등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다. 광주의 청년실업률도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7.6%로 1만 명 정도지만 체감실업자 수는 2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6.8%보다 0.8%가 오른 수치로 청년고용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불확실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년연장 보완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속도는 만족스럽지 않다.

청년고용의 악화는 가계를 붕괴시키고, 중산층의 감소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한 사회문제로 함께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가속화해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청년고용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올해 시정 최우선 가치를 청년일자리에 두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12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총 22개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해 지난해보다 70억원을 증액한 총 151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청년 창업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올해 6월에 개관하는 ‘광주직식산업센터’를 청년창업의 허브로 만들고, ‘청년 창업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창업가의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며,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사업’을 통해 70여개의 창업기업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자동차 R&D 인력양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등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양성 등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양성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청년 행정인턴제 등 취업지원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한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채용목표제, 가점제 확대 등을 정부 정책으로 제도화해 지역의 청년인재들이 더 많이 채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분야에서 만드는 것으로 광주시가 강점을 가진 자동차, 에너지, 문화를 축으로 한 3대 산업벨리를 집중 육성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 확대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토대로 전기·소수차 등 그린카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고용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청년실업에 대한 확실한 해법은 없다. 그러나 청년일지리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성장판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년일자리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社 說

삼성 가전라인 이러다 다 나가는 것 아닌가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냉장고 생산라인 해외 이전 결정에 앞서 세탁기 라인 1개가 지난해 이미 폐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가동 중이던 생산라인 2개 중 1개 라인을 지난해 연말 중단했다는 것이다. 세탁기 라인의 해외 이전은 가동 중이던 생산라인을 빼냈다는 점에서 냉장고 라인과는 달리 지역경제에 더욱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가동을 멈춘 세탁기 생산라인은 이미 광주 사업장에서 철거돼 베트남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생산라인 1개도 결국 해외로 이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시기가 많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총사 업비 1조220억 원을 들여 대규모 가전 공장을 조성 중이다. 올해 5월 준공, 7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따라서 광주 사업장의 냉장고를 비롯해 세탁기·에어컨 등 저가형 생산라인의 순차적 해외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온다. 앞서 진공청소기와 저가 냉장고 등도 멕시코와 베트남 등지로 생산라인을 옮긴 바 있다.

일부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광주 사업장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다”며 우려한다. 베트남 공장은 광주 공장 생산 품목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지역 경제단체 등은 냉장고 라인에 이어 세탁기 라인의 해외 이전마저 타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 시장까지 직접 나서 회사 차원의 입장 발표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뫼뫼’만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이윤 추구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기업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욱 치밀한 논리 개발은 물론 빈 생산라인을 이용한 새 아이템 등 저가형 생산라인의 순차적 해외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

폭설·한파로 전국이 ‘짱짱’ 피해 최소화해야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최강 한파’로 전국이 얼어붙었다. 광주 지역에 5년 만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에 둘러싸인 호남에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폭설까지 쏟아졌다.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했지만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주 중반부터 시작된 추위로 영광 송어양식장 대죽음에 이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시설하우스가 무너져 내리는 등 농수산물 피해도 속출했다. 얼어붙은 도로 때문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행인들의 낙상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경찰 및 소방당국은 체력 작업과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행정력만으론 역부족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농어구들이 힘을 모아야겠다.

저수수에 약한 돌과 송어 등의 양식 어류는 출하를 서두르고, 육상양식장 비닐하우스는 지지대를 보강하는 한

편, 비상발전을 준비해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 시설하우스는 지붕의 눈을 수시로 쓸어 줘야 붕괴에 따른 손실 예방이 가능하다.

도시의 골목은 날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기 쉽다. 따라서 자신의 집 앞은 물론이고 맞닿은 도로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내 집 앞 눈 쓸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정의 수도 계량기 동파는 얼었다 녹을 때 더 자주 발생하므로 한파 이후에도 당분간 주의가 필요하다. 동파를 예방하려면 계량기함을 감싸 보온을 하는 게 좋다. 외출하거나 잠을 잘 때는 욕조나 세면대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도물을 흘려보내면 계량기 파손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노약자는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하고 자동차 관리도 꼼꼼히 해야겠다. 자연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모두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서로 협력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역사에서는 배신이나 변절을 했더라도 다른 차원의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이나 쿠데타 이후의 업적을 따지는 경향이 그것이다. 또 개인에 대해 평가를 할 때는, 자신의 영달이나 이익을 남는 신념의 발로일 경우 변절이 용서되기도 한다.

신숙주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절자이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한 혁혁한 공로가 변절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역사에서 최악의 변절자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오삼계(吳三桂)이다. 오삼계는 명나라의 무장으로 서 청나라 진출을 막는 임무를 맡고 있던 중, 나라가 혼란해지자 되레 청군과 결탁했다. 그는 청나라의 중국 전역 평정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 계왕을 붙잡은 공로로 평서친왕으로까지 승진한다.

그는 광동의 상가회(尙可會), 푸저우의 경중명(耿仲明)과 함께 삼번(三藩)이라 불렸다. 번은 울타리를 의미하며, 청나라의 울타리를 뜻한다. 그러나 청

은 전국을 평정하자 독립 정권과 같은 위협적 존재인 삼번의 철수 명령을 내린다. 이에 오삼계는 반란을 일으키고, 독자적으로 나라를 세우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병사했다.

그동안 순조로웠던 양안(중국과 대만)관계가 대만 출신 친중파 가수로 인해 들끓고 있다. 친중파 가수 ‘황안’은 다국적 한국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예능프로그램에서 대만 국기를 흔드는 장면을 쾨쳐한 뒤, 대만 독립을 주장한다며 이를 퍼뜨렸다. 이로 인해 양안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 하지만

황안도 과거 TV 프로그램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사실이 알려져 역풍을 맞고 있다. 대만 국민들은 황안을 변절자로, 중국 국민들은 양안 관계를 해치는 ‘이간질쟁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한국 누리꾼들은 황안을 사라져야 할 ‘어그로란’이라며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어그로는 공격적이란 뜻의 ‘어그레시브’(aggressive)와 ‘꾼’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인터넷상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거슬리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채희홍 사회2부장chaeh@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6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